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길가에 앉아 있던 눈먼 사람처럼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은 멈추어 서서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듯
당신의 자비로 내 마음을 만지십니다.

보지 못하던 눈이 열리듯
내 삶에도 빛이 스며듭니다.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
어둠을 지나 빛을 향해 걷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빛 안에서 살아갑니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03/04/2026 기준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현재 기부 금액 - \$ 50,545
현재 참가 인원 - 104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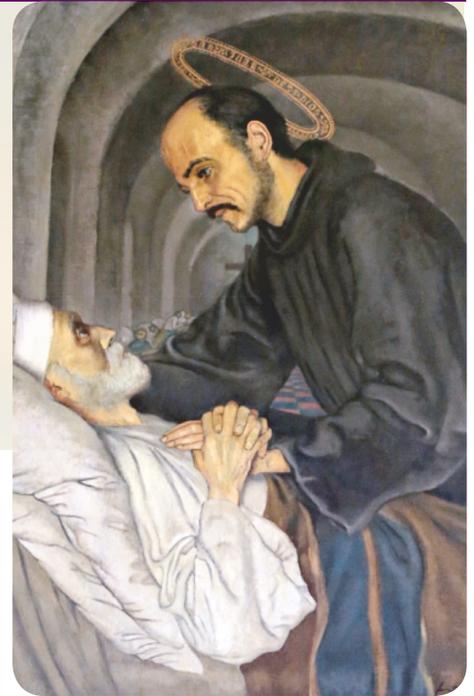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천주의 성 요한 (1)

모든 이를 벗으로 정성껏 돌봐
어린 시절 순례자를 따라 가출
인생의 본질 깨닫는 계기 돼



1550년 3월 8일, 스페인 남부 도시 그라나다에서는 아침이 오자마자 한 부음(訃音)이 날아들었다.

“천주의 성 요한이 돌아가셨다.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본명 후안 시다데(Juan Cidade). 1540년 투이(Tuy)의 라미레스(S. Ramirez) 주교가 경의의 표시로 내린 「천주의 성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던 그는, 자신이 태어난 날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임종했다. 심한 유행증과 관절염, 그리고 안구 이상 등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그는 쉬지 않고 자신이 세운 「자선의 집」에 기거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과 구호 물품을 구걸하는 등 이웃을 위해 살았다. 선종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은 그의 동료들과 병원 환자들, 그리고 그가 돌보았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집 앞에는 군중이 몰려들었고, 그들 중 대부분은 하루 계층에 속한 어려운 이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나버렸으니 이제 누가 우리를 보살펴 준다는 말인가?”

생존 시 직접 수도회를 창설하지는 않았지만, 사후 그의 모습을 보고 따르던 이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도회가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던 천주의 성 요한(1495~1550). 교황 비오 5세(1566~1572)는 그를 가리켜 “교회의 뜰을 온전히 꾸미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한 송이 꽃”이라 칭했다.

그가 보여 준 것은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철저히, 질서 정연하게 정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칠기만 했던 사회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의 불꽃이었다. 그에게는 거지들이 거리에서 방치되는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으며, 병자들이 병원에 실려 와 인간적인 대접도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도 또한 하느님의 뜻이 될 수 없었다. 그는 엄격한 가톨릭적 질서로 정비된 국가였지만 「카리타스(Caritas)」, 곧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았다. 또한 가진 것 없고 버려진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돌보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자선의 집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벗이 되었던 천주의 성 요한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을 누구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하느님의 어린이처럼 대했다. 그는 몸의 상처를 돌보고 부스럼과 딱지를 씻어 내며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었고, 충분히 먹고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돌보았다. 그에게 있어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어린이였다.

1495년 3월 8일, 포르투갈 몬데모르노보(Montemor-o-Novo)에서 태어난 천주의 성 요한은 여덟 살 되던 해, 집에 머물던 한 순례자를 따라 가출하는 어린 시절을 겪었다. 비교적 중산층에서 자랐던 요한은 집안 사업이었던 농작물 판매상을 물려받아 편안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운명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 진로는 바뀌게 된다. 요한을 데리고 나온 순례자는 그를 국경 너머 스페인에 있는 페르난도 알바레스 데 오로페사 백작의 영지까지 약 300km를 여행해 데려갔고, 백작을 섬기던 측근 돈 프란치스코 데 에루즈에게 맡겼다. 페르난도는 자기 집에 요한이 살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사춘기가 되자 「마요랄」이라 불리던 목양 감독관의 감독 아래 목동으로 일하게 했다.

1523년, 스페인 황제 카를로스 5세는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양측 군대는 스페인 북부 푸엔타라비아에서 접전을 벌였고, 요한은 오로페사 군대에 편입되어 스페인을 방어하기 위해 진군했다. 2년 동안 이어진 장기전 속에서 전세는 점차 스페인의 승리로 굳어져 갔다. 이 시기에 요한은 훗날 자신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두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덧없고 쉽게 무너지는 인생의 본질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사건은 요한이 프랑크 국경 근처에서 마초 징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말에서 떨어지면서 일어났다. 그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고, 적에게 붙잡혀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구원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점차 의식이 돌아왔고, 마침내 아군 진지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평생 이 구출을 성모 마리아의 중재 덕분으로 여겼다. 두 번째 사건은 병영에서 노획물을 지키는 야간 보초 임무를 맡았을 때 일어났다. 어느 날 그가 보초를 서는 동안 지켜야 할 물건들이 도난당했고, 격노한 직속 상관은 그에게 사형을 명했다. 그러나 요한이 교수대에 올라 목에 올가미를 걸고 있을 때 근처를 지나던 한 장교가 판결 취하를 요청하여 가까스로 처형을 면할 수 있었다.

곧 전쟁이 승리로 끝났고, 그는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 스페인 북서부의 콤포스텔라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이 성지순례는 많은 시간을 묵상과 기도로 보낼 수 있었던 시기였으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

공지 사항

1 십자가의 길 기도

● 일시 : 매주 금요일 10:00 미사 후
'재의 수요일' (2/18)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 (4/2) 미사 전까지 사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파스카 축제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미사 후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Rice Bowl

사순시기 동안 Rice Bowl을 채워서 성당에 가져오시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4/26(주일)까지 기부를 받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 사순 판공성사

● 일시 : 모든 미사 30분 전,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00까지 판공 성사가 진행됩니다. 성사 후 고해소 내 바구니에 판공 성사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별 헌금(Special Collection)

● 일시 : 3/14(토) - 3/15(주일)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Catholic Relief Services Collection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5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3/15 (주일) 오전 8시 미사 후
● 장소 : 110호 교리실

6 구역장 회의

● 일시 : 3/15 (주일) 오전 11:30
● 장소 : 110호 교리실

7 바다의 별 꾸리아 아치에스 행사

● 일시 : 3/22 (주일) 오후 1:00
● 장소 : 성전
● 준비물 : 목주, 뗏세라, 활동 수첩
● 참가 대상 : 활동 / 협조 단원
● 복장 : 성모님께 예를 드리는데 합당한 복장.

8 구역 음식 봉사/ 구역의 날

● 일시 : 3/22(주일)
● 음식 봉사 : Edmonds/ Lynnwood 구역
● 메뉴 : 제육볶음 + 된장국

9 성당 50주년 기념 기금 안내

50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0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 단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 단봉헌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기간 : 7/1/2025 - 8/31/2026
● 대상 : 전신자



입당송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 그를 사랑하는 이들과, 모두 모여라. 슬퍼하던 이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젖을 먹고 기뻐 뛰리라.

제1독서..... 사무 상 16,1-7,10-13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부음을 받다.>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제2독서 에페 5,8-14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요한 9,1-41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영성체송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사순 제3주일 (3/8)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60명	61명	223명	140명	36명	520명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118	예물 준비 성가 : 215, 511	성체 성가 : 174, 181	파견 성가 : 123
-------	-------------	---------------------	------------------	-------------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목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3/26/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4/18/26)	

레오 14세 교황 선출 1주년 기념 미사 강론

(2026년 3월 11일,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오늘 우리는 하느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베드로 사도의 266번째 후계자로 부름받으신 레오 14세 교황님의 선출 1주년을 기념하며, 이 거룩한 감사의 제단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기념의 자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지난해 4월, 12년 동안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해 헌신하셨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하느님 품으로 떠나보내며 우리는 깊은 상실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 떼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목자를 준비하시어, 우리가 '희망의 순례'를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이끌어 오신 레오 14세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께서 보여 주신 목자의 삶 안에서 우리 자신의 소명을 다시 바라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 들은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나?” 이 질문은 2천 년 전 제자들에게만 던져진 물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각자에게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망설임 없이 고백합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머리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쁨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함께 숨 쉬시는 분으로 받아들이실 때 터져 나오는 영혼의 울림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이 열쇠는 특권이나 권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섬김’을 위한 도구입니다. 굳게 닫힌 문을 더 단단히 잠그는 열

쇠가 아니라, 갈등과 절망으로 잠긴 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배제가 아닌 ‘환대의 열쇠’이며, 단죄가 아닌 ‘자비의 열쇠’입니다. 묶인 것을 풀고, 갈라진 관계를 이어 주며, 상처 입은 영혼을 하느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화해의 열쇠’인 것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바로 이 열쇠를 두 손에 쥐고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전쟁과 분열,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교황님은 즉위 미사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복음을 선포하며, 인류를 위한 화합의 누룩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이제 사랑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교황님의 사목적 여정 전체를 이끄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교황님은 가난한 이들의 애끓는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난민과 이주민을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평화를 위해 중재의 길을 나서며, 불화의 현장에 사랑의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특히 교황님께서 보여 주신 ‘경청하는 목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교황님은 일반적으로 지침을 내리기보다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니다. 가장 작은 이들의 목소리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식별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러분을 위해서는 주교이지만, 여러분과 함께할 때는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을 오늘에 되살리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황님은 우리를 재촉하여 서두르는 길이 아니라, 함께 식별하고 함께 책임지는 길로 초대하십니다. 혼자 빨리 가는 길이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멀리 가는 길로 부르십니다. 서로 다른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함께 걸어가는 교

회’, 곧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교회로 이끌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바로 이러한 ‘함께 걷는 교회’의 기쁨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은총의 장이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의 다리를 놓으며, 활짝 열린 교회의 얼굴을 발견하는 축제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 뜻깊은 여정을 준비하며, 우리는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시는 교황님의 영육 간 건강과 풍성한 사도직의 결실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미사는 교황님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열쇠를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은 닫힌 문을 더 굳게 잠그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까?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환대와 화해의 열쇠를 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좋은 하느님, 당신의 종 레오 14세 교황을 저희의 목자로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어,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당신 교회를 평화로이 이끌게 하소서. 또한 저희도 마음을 모아 교황님과 함께 복음의 길을 걷는 충실한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향기로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사랑하기 위한 시간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2026년 3월 11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 용 훈 주교